



신공항이 들어서면 항만·철도·공항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사진은 우리나라 물류의 심장인 부산신항).



가덕도 등대는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었으며 2002년까지 불을 밝혔다.

짧다고 만만하게 보는 것은 금물이다. 갈맷길 코스 중에서 난이도 높은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

평화로운 어촌 산책, 대항전망대~세바지 마을



세바지 인공동굴은 일제강점기 탄광노동자를 강제동원에 만들었다.

대항전망대에서 대항 마을이나 세바지 마을로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는 코스도 인기가. 대항전망대에 서면 대항마을, 거가대교 주탑 등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신공항을 기원하는 비행기 조형물 앞은 요즘 뜨는 인증사진 코스이다. 인증사진을 찍고 길을 따라 10분 정도 내려오면 대항마을로 가는 길과 세바지 마을로 가는 길로 나뉜다. 두 마을 모두 평화로운 어촌의 풍경을 간직한 곳이지만, 인공동굴을 보기 위해 세바지 마을로 향했다.

세바지 마을은 앞은 바다, 뒤쪽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세바람(서남풍의 방언)을 받는 등반이라 하여 '세바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세바지 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이름은 '세바지 마을', 이곳에 자리한 인공동굴은 '세바지 인공동굴'로 표기한 곳도 많다.

마을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아담하다. 로맨스

영화에 나올 듯 분위기가 있는 하얀 등대 앞을 지나 나 작은 고깃배가 천천히 지나다. 한걸음에 걸어 갈 수 있는 포구를 따라 느릿느릿 걸으면 '세바지 인공동굴'이 나타난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가 미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탄광 노동자를 동원해 만들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채워진 곳이다. 평화의 시대, 우리는 고난의 결과인 이 길을 현대전화나 사진기를 들고 걷는다.

약간 엄숙한 마음으로 구불구불한 인공동굴을 지나 반대편에 이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고운 모래사장 대신 귀여운 자갈이 가득한 몽돌 해수욕장이다. "자르르 자르르" 자갈이 파도에 쓸려 오르내릴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일본군 포진지 터, 외양포 마을



일제는 러시아 무적함대와의 해전을 위해 외양포 마을에 포대진지를 구축했다. 왼쪽은 엄폐 막사, 오른쪽은 탄약고이다.

가덕도에 남겨진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있다. 외양포 마을이다. 대항(大項)의 바깥쪽으로 항구라는 뜻에서 '외항(外項)포'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외양포'로 표기한다.

일제는 1904년 외양포 마을 인근 민간 64가구를 강제로 쫓아내고 섬을 점거했다. 이후 러시아 함대와의 해전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포진지를 만들고 군사 거점으로 활용했다. 광복 후에는 이 주민들이 들어와 군 막사 등의 시설을 개조해 살았다. 아직도 마을 내부에는 포를 설치했던 포진지, 몸을 숨기고 생활했던 엄폐 막사, 탄약고, 사령관실 등 군사용 건축물과 우물, 화장실 터 등이 남아있다.

광복 후 일본군은 떠났지만, 가덕도는 여전히 군 작전지역이다. 외양포 일대를 비롯한 섬 일부 지역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 때문에 또 하나의 가덕도 명물인 등대를 방문하려면 미리 출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덕도 등대는 대한제국 시대에 만든 유인등대로 1909년 12월 점등했다. 초기 직원이나 기술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건축 양식은 일본식과 유럽식이 조화를 이룬다. 원형이 잘 보존돼 2002년 새 등대가 세워질 때까지 사용했다. 등대 견학 및 숙소 체험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에서 방문 2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가덕도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인적마저 드물었던 평화로운 어촌마을에서 커다란 골리앗 크레인과 색색의 컨테이너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부산신항을 지나 천천히 일상으로 복귀한다. 미래의 우리는 더 넓은 세상, 다른 대륙으로 떠나기 위해 이 길을 다시 찾을지도 모른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갈림길에서 가덕도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린다.

글·하나은/사진·권성훈
하나은_ naeun11@korea.kr

가덕도 둘러보기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3번 출구 앞에서 520번 시내버스를 타면 동선 마을, 대항 마을, 대항전망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배차 시간이 56분이므로 차 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 갈맷길 5-2코스: 총거리 20.1km, 소요 시간 약 7시간, 난이도 아주 어려움
천가교-연대봉-대항산책장-대항세바지-누릉능-사슴목장-동선 마을-동선방조제-눌차 마을-천가교
- 가덕도 등대 생태탐방길: 총거리 4.4km, 소요 시간 약 1시간30분, 난이도 보통
외양포 마을-가덕도 등대-외양포 마을
- 바다와 만나는 힐링길: 총거리 7.89km, 소요 시간 약 2시간, 난이도 쉬움
동선 마을버스 정류장-척골소류지-누릉능-어음포-대항세바지항-인공동굴-대항사거리-대항산책장

- 숲속의 힐링길: 총거리 11.6km, 소요 시간 약 3시간, 난이도 아주 어려움
선창 마을버스 정류장-갈마봉-구곡산-삼박봉-응주봉-국군묘지-천성고개-매봉-응봉산-강금봉-동선세바지-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선창 마을
-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길: 총거리 5.1km, 소요 시간 약 1시간30분, 난이도 보통
지양골 주차장-백재덕 추모공원-연대봉 정상-어음포 산불초소-지양골 주차장
- 느리게 걷는 고향길: 총거리 8.55km, 소요 시간 약 2시간, 난이도 아주 쉬움
동선 마을버스 정류장-외물 마을-눌차초등학교-정거 벽화마을-국수당-내물 마을-동선방조제-천가어린이집-동선 마을버스 정류장
- 역사 생태 탐방길: 총거리 4.7km, 소요 시간 약 2시간30분, 난이도 보통
대항 마을 공영주차장-외양포 임도-외양포 일본군 포진지-탄약저장고-관측소-국수봉-산악보루-외양포 생태터널-대항 마을 공영주차장